

일 주 문



교육 지원지 선정차 네팔 방문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5월 14일~18일 교육 지원 대상지 선정차 네팔 카트만두 지역을 방문한다.



어버이날 기념 잔치 열어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현성정사 주지)은 5월 6일 현성정사에서 흥은동 거주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어버이날 기념 잔치를 열었다.



동일부 상생포럼서 남북교류 제안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4월 28일 동일부(현인택 장관) '상생 공영 포럼'에서 남북간장관회담의 화와 종교교류를 제안했다.



제4회 이주민 초청 잔치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은 5월 17일 제4회 이주민 초청 잔치를 실시해 한국 전통 문화체험, 동국대 일산병원 무료 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안마 선원 10주년 법회와 '특강'
남양주 미안마선원장 산디마 스님은 5월 17일 선원 개원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여름 위빠사나 특강'을 실시한다. (031)559-531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육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미타사 정수암 주지)이 4월 22일 '제1회 사회복지관 중사자 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청소년 비만 사찰음식이 최고

파라미타 사찰음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비만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가 사찰음식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식생활문화 개선에 나섰다. 1박2일 주말 템플스테이를 통해 직접 산나물을 채취하고 영양 교육과 함께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발효공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파라미타협회는 5월 30~31일 서울 봉은사, 경기 백전사에서 진행하고 △부산파라미타협회는 5월 30~31일 경남 대원사 △대전파라미타협회는 6월 6~7일 연기 연평사 △충북파라미타협회는 5월 23~24일 제천 덕주사 △경남파라미타협회는 5월 16~17일 진해 대광사 △전남파라미타협회는 5월 23~24일 하동 쌍계사에서 실시한다. (02)723-6165 이상언 기자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사찰 만들 터”

화엄사 주지 재선된 종삼 스님

“한국 제일의 문화사찰로 거듭 나겠습니다.”

4월 2일 화엄사 산중총회에서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주지에 재선된 종삼 스님(사진)은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종삼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前 주지 스님들이 선방을 찾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화엄사이다. 본의 아니게 집착을 떨치지 못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부끄럽다”면서도 “참화하며 분사 발전과 문중화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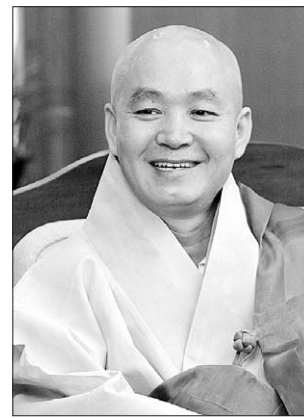
특히 종삼 스님은 2012년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를 교구의 국제화 및 문화사찰로서 위상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마스터플랜도 소개했다. “호남지역 템플스테이 거점사찰로 지정돼 진행 중인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완공하고, 여수세계

박람회를 한국전통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스님은 교구 내 사찰들의 템플스테이 사업을 한단계 발전시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이룰 계획이다.

“교구 차원에서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사심암, 도림사, 향일암, 홍곡사 등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교구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교구사찰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템플스테이 사업을 펼쳐겠습니다.”

교구 전 지역 사찰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제공될 사찰안내로드맵 등 인터넷 홍보 기반을 비롯해, 여수지역 교구



내 사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사찰음식 제공, 여수 흥곡사를 거점으로 한 승병들의 활약상을 담은 뮤지컬 공연 등 ‘문화사찰 화엄사’ 브랜드에 걸맞은 모습을 보충하는 것이 다채롭다.

두 번째 화엄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 종삼 스님의 임기는 기축년 하안거 결계일인 9월 시작돼 2013년 5월까지다. 조동섭 기자

-KBS다큐 '선의 황금시대' 를 보고

“무상 선사 조명 좋았으나 역사적 규명 미흡”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KBS가 준비한 ‘무상 대사’를 보고 몇 가지 느낀 소감을 적어본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대중교육을 끌어올리고,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면 흥미 위주는 자칫 사실을 오도하기 쉽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의 역사교육을 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역사인물을 평가하는데 충실한 문헌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 무상 선사의 평가가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는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

1. 무상 선사는 중국에 건너간 어느 신라 구법승보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불교 활동에 큰 공적을 남겼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풍부한 행적의 문헌을 남겼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상 선사의 행적은 그를 가장 확실하게 살피는 요건이 된다. 행적에 따라 3시기로 나뉜다.
2. 무상 선사는 신문왕의 4번째 왕자 사증일 가능성이 크다.

성덕왕으로 잡을 때는 입당 연대와 가족관계가 부합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영민하고, 기백이 넘치는 소우자였다. 더욱이 당나라에 가서는 항상 그의 곁에는 신룡이 함께 했다.

3. 무상 선사는 수행 교리 홍교의 3박자에 경계를 두지 않고 넘나들며 최고 지선의 경지를 장충했다.

4. 수행은 북쪽의 두타행을, 그가 주장한 삼구용심(三句用心)은 남쪽의 심오(心要)를 닦았다. 즉, 무념이 혜능, 신화가 제정한 수행방법을 주로 했기 때문에 ‘돈교법’이라 불렀다. 무상은 남북 중에 속하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는 독자성을 유지했다.

5. 선종 7종 가운데 정종종은 2번째 큰 세력이었다. 이 말은 초기선종사에서 대표된다는 뜻이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사천(咸南)의 정종종이 외연적으로 티베트와 남조국까지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가장 많은 제자를 배출시켰다.

6. 무상은 정종종을 확립했고

효교의 중심에 ‘정종본원’을 세웠다. 그의 법호가 정종은 아니다. 정종종은 사찰 이름에서 붙여졌다. 사액이 법호보다 개인의 이름에서 붙여진 경우는 오직 장경사(章敬寺) 뿐이다. 사천에 많은 사찰을 중창한 것은 현종(명황)과의 만남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폭 넓은 시주(悭捨)에서 사찰, 종당, 작은 난야가 세워졌다. 사천에서 불사는 단연 으뜸이다. 정종종의 본부는 정종사이다. 대자사는 무상 선사가 중창했을 뿐이다.

7. 무상 선사가 나한 성인에 속한 것은 현종(명황)을 포함해 상대를 설복시키는 타고난 재주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6통의 신통력이 밀거름이 돼 폭넓게 동향, 티베트와의 남조국까지 전파됐다. 그 핵심에 자비심으로 자세를 낮춘 무상은 중국 인민에 다가갔다.

8. 다선일미와 무상 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그의 동시대에 중국에 갔던 성도의 또 다른 김화상, 북명주의 무무

선사, 구화상 김교각 스님을 잇는 삼각형 지역에서 활동한 신라 고승을 보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9. 일본의 조동종은 청원계의 동산양계를 원조로 하기 때문에 무상 선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선의 분위기보다는 ‘무상 오경전’의 격식이 오위방편과 닮았다는 점 외에는 선법 자체가 다르다. 오히려 의식에 있어서 개혁적인 보살 무주로 이어지는 선법을 강조해야 했다.

위의 아홉가지 과정을 풀어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채금전(采金田)과 ‘시라’를 등장시킨 것은 진행순서에서 볼 때 쓸쓸한 느낌을 받는 장면이었다. 또, 마조도일 선사가 무상 선사의 제자인가는 중국 측 입장차 다르기 때문에 관련 문헌과 선택이 서로 맞았는가를 말해야만 했다.

특히 무상의 입당시기는 그의 입적에서부터 역산하면 대략 4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변인석
前 아주대 교수

‘한국동방학회’ 창립법회·학술대회 개최



한국동방학회 창립준비위원회(창립준비위원장 이형환)는 5월 8일 동방대학원 대강당에서 학회 창립법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총회에서 동방대학원대학장 정성욱 총장이 회장으로 추대됐다. 조동섭 기자

‘한암사상과 조계종의 정체성’ 세미나



평창 월정사(주지 정래)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암사상과 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인경 스님(동양대학교학원대학) 등이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능인복지관 ‘노인생명페스티벌’ 개최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선)은 5월 7일 저소득 독거노인 자살예방 프로젝트 ‘노인생명페스티벌’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인경 스님(동양대학교학원대학) 등이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대불련 ‘불교문화체험 한마당’ 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환)는 5월 5일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 맞은편 포도대장 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희망 및 어린이날 맞이 대학생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상언 기자

종로경찰서·소방서 방문 봉축위원품 전달



조계사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연재)와 조계종 홍보부는 4월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종로전경에게 봉축위원품으로 500인분의 떡과 110g의 삼겹살을, 종로소방서에 300인분의 떡을 전달했다. 이상언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1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 ▶개강: 2009년 5월 18일(월)
-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이프 제공
- ▶수련비: 200만원
- ▶특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튼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통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경생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